

지역 문제 인터뷰: 질문에 결론을 넣지 않는 법

똑똑 · 에디터 새봄 · 발행 2026.09.30

한 번에 한 가지를 묻고 판단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.

수치·상황·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. 특정 학교·제품·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.

쉬운 설명

한 번에 한 가지를 묻고 판단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. “불편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드시죠?”는 응답 전에 부정적 평가를 넣습니다. 평가 형용사를 지우고 경험·횟수·상황을 따로 묻습니다.

핵심

- “불편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드시죠?”는 응답 전에 부정적 평가를 넣습니다.
- 평가 형용사를 지우고 경험·횟수·상황을 따로 묻습니다.
- 중립적으로 써도 표본이 작으면 지역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합니다.

개념 · 무엇을 구분하나요?

“불편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드시죠?”는 응답 전에 부정적 평가를 넣습니다. 질문의 표현은 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인터뷰에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자리를 남겨야 합니다.

방법 ·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?

평가 형용사를 지우고 경험·횟수·상황을 따로 묻습니다. 한 문장에 두 문제를 넣지 않고 실제로 읽어 보며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합니다. 참여자는 답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.

가상 사례 · 직접 써 보는 비교

가상 동아리는 “위험한 골목이 싫죠?”를 “이 길을 걸을 때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? 있었다면 언제인가요?”로 고칩니다. 개선 전 문장은 결론을 암시합니다. 수정 문장은 경험이 없다는 답도 허용합니다.

한계 ·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?

중립적으로 써도 표본이 작으면 지역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합니다. 인터뷰 기록은 동의를 얻고 필요 없는 개인 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. 질문의 순서도 뒤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직접 생각해 보기

“학교 급식이 나빠서 남기나요?”를 고쳐 보세요.

확인 설명

“최근 급식을 남긴 적이 있나요? 있었다면 어떤 이유였나요?”처럼 결론을 빼고 두 질문으로 나눕니다.

인터뷰 질문에 원하는 답을 숨겨 넣지 않으려면?

“불편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드시죠?”는 응답 전에 부정적 평가를 넣습니다. 질문의 표현은 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인터뷰에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자리를 남겨야 합니다. 중립적으로 써도 표본이 작으면 지역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합니다.

이 글의 사례를 실제 학교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?

사례는 읽기 연습용입니다.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장소·시기·대상과 원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원문과 출처

- Pew Research Center · Writing Survey Questions — <https://www.pewresearch.org/writing-survey-questions/>: Question wording; question order: 유도·복합 질문 검토
- Information Commissioner’s Office · Data minimisation — <https://ico.org.uk/for-organisations/uk-gdpr-guidance-and-resources/data-protection-principles/a-guide-to-the-data-protection-principles/data-minimisation/>: At a glance; In brief: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·보유; 한국법 해설 아님

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: <https://www.dokdok.co/about#editorial>

온라인 원문 ·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https://www.dokdok.co/reading/daily-2026-10-14>